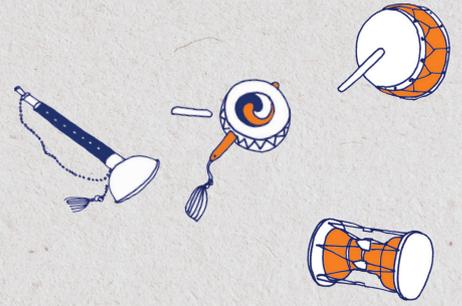


## 02



# 국악과 지구촌의 만남 세계 속의 국악

### 단원 개관

이 단원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민요를 통해 각 지방의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고,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 부르기, 신체 표현 하기,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가창 활동으로 우리 가락의 멋과 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상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단원 지도 계획

대단원	소단원	제재명	교과서 쪽수	주요 학습 활동
02. 국악과 지구촌의 만남 세계 속의 국악		아리랑의 발자취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의 유래와 역사적 배경 알아보기</li> <li>• 아리랑의 보존·계승·발전 방안 토의하기</li> </ul>
		진도 아리랑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기</li> <li>• 시김새 살려 노래 부르기</li> </ul>
		강원도 아리랑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강원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기</li> <li>• '경복궁타령'의 역사적 배경 알아보기</li> </ul>
		경복궁타령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민요의 특징 살려 노래 부르기</li> <li>• 세도막 형식의 구성과 악곡 분석하기</li> </ul>
		뱃노래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진타령장단 알아보기</li> <li>• 메기는 부분의 가사를 즉흥적으로 창작하여 부르기</li> <li>• 동부(경상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기</li> <li>• 가사에 맞는 신체 표현 하기</li> </ul>
		신고산타령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함경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기</li> <li>• 자진타령장단 익히기</li> </ul>
		오돌또기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민요의 특징을 살려 부르기</li> <li>• 굿거리장단 익히기</li> </ul>
		동창이 밝았느냐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곡의 형식, 장단, 반주 알아보기</li> <li>• 시조와 가곡 비교해 보기</li> <li>• 가락과 관현악 반주의 어울림을 느끼며 감상하기</li> </ul>
		수제천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음 형식 알아보기</li> <li>• 수제천의 악기 편성 알아보기</li> </ul>
		영산회상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배에 따른 형식 알아보기</li> <li>• 영산회상의 종류, 악기 편성, 특징 알아보기</li> </ul>
		종묘 제례악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 제례악의 악기 편성 알아보기</li> <li>• 종묘 제례악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알아보기</li> <li>• 종묘 제례악의 쓰임과 구성을 알고 감상하기</li> </ul>

# 1차시 아리랑의 발자취

## 학습 목표

- 아리랑의 유래와 특징을 안다.

## 제재 해설

‘아리랑’은 언제부터 불리기 시작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슬픔과 기쁨 등 가슴 속에 품은 한을 선율에 붙여 불렀던 노래로, 민족적 동질성을 지탱해 주었다. 1896년대까지 12박자로 불렸던 아리랑은 1926년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에 서양 음악적 요소가 일부 가미된  $\frac{3}{4}$ 박자의 주제가 아리랑으로 변화하였다. 이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주제가 아리랑도 크게 유행하였고, 그 영향으로 각 지방마다 독특한 가락의 다양한 아리랑들이 많이 불리게 되었다. ‘아리랑’은 빠르기를 달리함에 따라 곡의 느낌을 변화시킬 수 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응원가로 사용된 바와 같이 빠른 템포에 맞춰서 부르면 흥겹고 신이 나며, 우리 민족 고유의 한의 정서를 담아 느리게 부르면 슬프게 느껴지기도 한다. 유네스코는 2012년 12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아리랑’을 등재하였으며,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노래는 모두 포함한다.

## 교수 · 학습 계획

단계	교수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 자료 · 유의점
도입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을 통한 ‘아리랑’ 플래시몹을 감상한다.</li> <li>• ‘아리랑’을 주제로 한 음악 제목을 찾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 주제의 창작 국악 관현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최성환의 ‘아리랑’, 백대웅의 ‘남도 아리랑’, 박범훈의 국악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아리아리’, 김계옥의 ‘25현 협주곡 아리랑’ 등</li> </ul> </li> <li>- 아리랑을 주제로 한 대중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윤도현 밴드의 ‘아리랑’, 김연아의 ‘아리랑’, 싸이의 ‘아리랑’ 등</li> </ul> </li> <li>- 아리랑을 주제로 한 외국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미국과 캐나다의 ‘아리랑’, 나윤선의 ‘아리랑’, 살타첼로의 ‘아리랑’ 등</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li> <li>• 밀양 아리랑</li> <li>• 해주 아리랑</li> <li>• 정선 아리랑</li> <li>• 광복군 아리랑</li> <li>• 홀로 아리랑</li> </ul> </li> </ul>
전개	악곡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의 유래를 알아본다.</li> <li>• ‘아리랑’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본다.</li> <li>• ‘아리랑’의 종류를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아리랑’, ‘본조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해주 아리랑’, ‘청주 아리랑’, ‘광복군 아리랑’ 등</li> </ul> </li> <li>• ‘아리랑’을 주제로 한 악곡을 찾아 감상하고, 느낌을 발표한다.</li> <li>• ‘아리랑’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상할 때 자세를 바르게 하도록 한다.</li> </ul>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의 분위기를 이해하며 노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은 한을 담아 느리게 부르면 슬프게 느껴지지만, 빠른 템포에 맞추어 부르면 흥겹고 신이 난다.</li> </ul> </li> <li>• ‘홀로 아리랑’의 분위기를 이해하며 노래한다.</li> <li>• ‘아리랑’과 ‘홀로 아리랑’을 함께 부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랑’과 ‘홀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도록 한다.</li> </ul>
정리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마치장단을 익히도록 한다.</li> </ul>

## 아리랑의 발자취

● 학습 목표 | 아리랑의 유래와 특징을 안다.

아리랑은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슬픔과 기쁨 등 가슴 속에 품은 한을 선율에 붙여 불렀던 노래로, 민족의 동질성을 지탱해 주었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의 의미를 넘어서 역사적 · 문화적 · 예술적 의미를 지니며, 시민들의 애환을 대변해 준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면서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며, 공동체의 정체성의 징표이자 사회적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 등 아리랑은 대단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리랑은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노래를 모두 포함한다.

① 아리랑의 유래와 역사적 배경을 모듬별로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경기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아리랑 아 - 리랑 - 아 - 리랑 - 아 - 라 - 리 - 요 - - - -

동부(경상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밀양 아리랑 남 - 종 - 보 - - - 소 - 남 - 종 - 보 - - - 소 - 남 - 종 - - - 보 - - - 소 - - - -

서도(황해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해주 아리랑 아 - 리 - 아 - 리 - - - 일 - 수 - 아 - 라 - - - 리 - 요 - - - -

동부(강원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정선 아리랑 아 - 리 - - - 랑 - 아 - 리 - - - 랑 - 아 - 라 - - - 리 -

광복군 아리랑 아 - 리 - 랑 - 아 - 리 - 랑 - 아 - 라 - 리 - - - 요 - - -



미국 선교사 헬메트가 최초로 서양 악보로 옮긴 '자진 아리랑'



'자진 아리랑' 이 새겨진 문장제비 비석

활동 2 아리랑을 주제로 한 악곡을 찾아 감상하고 느낌을 발표해 보자.

악곡	느낌 점
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최성환 작곡)	
아리랑 협주곡 (이지수 작곡)	

활동 3 '아리랑'과 '올로 아리랑'을 함께 불러 보자.

아 리 랑 - 아 리 랑 - 아 라 - 리 - 요  
 지 - 벌 리 동 해 바 다 의 료 - 운 - 심  
 아 리 랑 - 고 - 개 - 로 - 님 어 간 다 - -  
 오 - 늘 도 기 쉰 바 람 불 어 오 겠 - 지 - - -  
 나 름 버 리 고 가 시 는 님 - 손  
 조 그 만 얼 굴 보 바 람 - 맺 - 으 니  
 심 리 도 - 못 - 가 - 서 - 발 행 난 다  
 독 도 야 간 밤 에 잘 - 잤 느 나

활동 4 아리랑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토의해 보자.

개인적 방안	국가적 방안

53

### 교과서 활동 해설

#### • '아리랑'의 유래 알아보기

'아리랑'의 어원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뚜렷한 이론은 없으며, 아직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 아랑설(김재수)

'아랑'이라는 예쁜 여인이 억울하게 죽어서 그 설움을 벗어 달라고 밤마다 사또에게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는 밀양의 아랑 설화에서 나온 것이다.

#### - 알영설(김지연)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부인 '알영'의 덕을 찬미하는 것에서 생긴 설이다.

#### - 아이룡설(남도산)

'아이룡'은 '나는 귀가 먹었다'는 뜻으로 대원군의 경복궁 재건 당시 백성들이 강제 징수에 힘들어 이것을 강요하는 어떠한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것에서 나온 설이다.

#### - 아리령설(양주동)

'아리'는 알, 어리, 아루, 오리와 같은 고개라는 지형으로 설명하였다. 가사를 통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가사의 느낌을 찾아야 한다.

### 참고 자료

#### 1. 여러 지방의 아리랑에 대한 음악적 특징과 느낌

종류	지역	특징 및 느낌
아리랑	경기 민요 경토리	한을 담아 느리게 부르면 슬프게 느껴지지만, 빠른 템포에 맞추어 부르면 흥겹고 신이 난다.
밀양 아리랑	동부(경상도) 민요 메나리토리	높은 음에서 시작하여 차례로 내려오며 빠른 장단과 경쾌하고, 강한 억양을 가진다.
강원도 아리랑	동부(강원도) 민요 메나리토리	3소박과 2소박이 섞여 있는 혼합 박자로 되어 있으며, 엇모리장단을 사용하고, 내려가는 가락에 '라-솔-미'를 빠르게 흘러 내리는 것과 '레'를 꺾어주는 시김새를 사용하고 있다.
해주 아리랑	서도 민요 수심가토리	떠는 음(라)은 낮고 잘게 떨어져 콧소리를 쓰고, 큰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콧소리를 섞어서 잘게 떠는 것이 특징이다.
광복군 아리랑	메나리토리	1940년 전후 일제 강점기 때 만주 등지에서 독립 운동을 하던 독립군들이 군가로 부르던 '광복군 아리랑'이 탄생하였다. '광복군 아리랑'은 '밀양 아리랑'의 선율에 가사만 바꾸어 불러진 노래이다.

#### 2. 헐버트(1863~1949)

1886년 조선 정부의 초청 교사로 내한하여 육영공원 교사로 5년간 봉직하다가 1892년 귀국한 후, 1893년 다시 내한하여 1985년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직후 고종의 경호를 담당하였다.



◀ 1896년 헐버트에 의해 채보된 '자진 아리랑'



◀ '자진 아리랑'이 새겨진 문경새재 비석



### 3. 아리랑을 주제로 한 악곡 소개

남도 아리랑	백대웅 작곡. '진도 아리랑'의 선율과 '밀양 아리랑'의 선율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도입부에서 '밀양 아리랑'의 선율을 주제로 리듬이 변화하며 작품 전반에 걸쳐 관현악으로 변주되어 나온다.
아리랑 환상곡	최성환 작곡. 민요 '아리랑'을 환상곡 풍으로 편곡한 곡으로 풍부한 민족적인 선율이 담겨 있으며, 수난의 시대와 영광의 미래를 암시하듯 전개 되고 있다. 웅장함과 애절함 등 극대화된 감정의 표현을 대규모 관현악 편성으로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다.
나윤선의 아리랑	나윤선은 프랑스 재즈 차트 1위 80주간 스테디셀러 기록, 프랑스 골든 디스크 수상, 25개국 200여회 공연을 한 재즈 가수로 나윤선이 부른 재즈 '아리랑'은 지금까지 들었던 전통 아리랑 노래 가락과 다르고 신선하다.

### 4. 홀로 아리랑

#### • 악곡 해설

한돌이 1990년대에 작사·작곡한 노래로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독도 이야기를 전통 음계로 작곡한 가요이다. '남북의 젊은이들이 독도에서 만나 새해를 맞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홀로 아리랑'은 독도의 '독'을 '홀로'라는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며, 남과 북이 '홀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자'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세마치장단이나 중모리장단에 어울리는 우리나라 전통음악 특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이다.

#### 더 알아보기

##### • 작사·작곡자: 한돌(1953~ )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포크 가수 겸 작곡가로 본명은 이흥건이다. 한돌은 '작은 돌의 역할이라도 하자'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 이름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개똥벌레', '터', '불씨', '유리벽' 등이 있다.

### 5. 우리 음악을 보존·계승하기 위한 방안

첫째, 전수자 저변 확대 및 지원 확대, 공개 발표회 개최, 전통 문화 체험 공간을 확충한다. 둘째,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전수 교육관 등을 확충한다. 셋째, 학교 등의 공교육과 연계, 지방 문화원의 기능 강화, 명예 보유자 제도 정착 유도, 지방 중심의 무형문화재 관리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의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음악의 보존과 전승은 원형을 유지해 나가면서 최소한의 자생력을 가질 때에 보존·계승이 가능하다. 특히, 지방 무형 문화유산은 보존·계승하기 위해서는 기능·예능보유자,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

식함과 동시에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자료

#### 1.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

민요는 서민들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노래한 것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소박한 정서의 노래이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향토색과 특징이 잘 드러나 있으며, 농업과 어업 등 관련된 일노래가 많다. 3소박 계통의 리듬과 5음 음계를 주로 사용하며, 시김새, 꾸밈음이 많은 가락이 특징이다. 또, 한 사람이 메기면 여러 사람이 받는 형태의 메기고 받는 소리로 이루어진 곡이 많다.

#### 2. 메기고 받는 소리

우리나라 민요의 대부분은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메기는 소리는 혼자 선창을 하는 것이고, 받는 소리는 메기는 사람의 소리를 들던 사람들이 단순한 선율과 가사로 메기는 소리를 받아서 부르는 것이다.

#### 3. 시김새

시김새는 가락을 이루고 있는 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장식음으로, 종류에는 소리를 '떨어주는 요성', '홀러내리는 퇴성', '평으로 내는 평성', '퇴성과 반대로 음을 밀어 올려서 소리 내는 '추성' 등이 있다.

#### 4. 긴자진 형식

민요에서 느린 소리(긴소리) 다음에 빠른 소리(짧은 소리)를 이어서 부르는 형식이다. 이런 형식을 가진 민요는 긴소리와 자진 소리의 두 곡이 짝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긴육자배기'와 '자진육자배기', '긴농부가'와 '자진농부가', '긴염불'과 '자진염불' 등이 있다.

#### 5. 각 지방의 토리의 특징

토리는 민요를 구성하고 있는 음과 음의 기능, 음을 움직이는 방식, 발성법, 장식음의 사용법을 포괄하는 개념의 음악 어법이다.

#### • 경토리

경기 민요에 나타나는 토리로 구성음은 대체로 '솔-라-도-레-미'의 5음 음계를 사용하며, 말붙임새가 독특하고, 선율의 굴곡이 유연하면서도 장식음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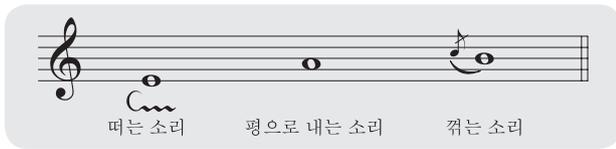
• 메나리토리

강원도·함경도·경상도 민요에 나타나는 토리로, 구성음은 '미-라-도'를 골격음으로 하고 '솔'과 '레'음은 경과음이나 장식음으로 주로 사용한다.



• 육자배기토리

남도 민요에 나타나는 토리로, 구성음은 3음(미-떠는 소리, 라-평으로 내는 소리, 시-꺾는 소리)을 주로 사용한다.



• 수심가토리

황해도·평안도 민요에 나타나는 토리로 구성음은 주로 '레-라-도'의 3음인데,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음들이 있다. '라' 음은 낮고 잘게 콧소리를 섞어서 떨어준다.



6. 각 지방 민요의 특징

동부 민요	강원도·함경도 민요는 대체로 애원조의 노래가 많으며, 높은 음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선율의 구조가 많다. 경상도는 빠른 장단과 경쾌하고 강한 억양을 가진다.
경기 민요	경토리를 사용하며 감정 표현이 경쾌하고, 가락이 단순하며 부드럽고 서정적이다.
남도 민요	육자배기토리를 사용하며, 격렬하게 떠는 소리와 꺾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를 사용하며 표현이 구성지고, 극적이다.
서도 민요	으뜸음에서 5도 위의 음을 떨어주며, 애수적이고 감상적이다.
제주 민요	제주 특유의 사투리의 영향을 받아 이국적인 느낌이 나타나며, 어업에 관한 노래가 많다.

7. 민요의 분류

민요는 어느 정도 파급되었는가에 따라 통속 민요와 향토 민요로 구분할 수 있다. 통속 민요는 이미 넓은 지역에 퍼져서 음악적으로 많이 세련되어 있는 민요를 말하며, 향토

민요는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되어 불리고 있는 민요를 말한다. 민요는 그 기능 및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 농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던 노래로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논매기소리', '벼타작소리', '방아짙는소리', '보리타작소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어요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로 '줄꼬기 소리', '배내리기소리', '노젓기 소리', '그물당기기 소리', '고기푸는소리', '멸치후리는 소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기타 노동요

농업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노동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로 '꼰베기 소리', '나무내리는 소리', '물레 소리', '베틀 소리', '망건뜨기 소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의식요

결혼 의식이나 장례 의식에서 부르던 노래로 '발인소리', '운상소리', '자진운상소리', '달구소리', '지신밟기소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부녀요

부녀자들이 집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로, '시집살이 노래', '애기어르는 소리', '신세한탄가', '나물뜯기 노래', '바느질노래', '빨래 노래·방아 노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동요

놀면서 부르던 노래로 '대문놀이', '소꿉놀이', '외따기', '기와밟기 노래', '남생아 놀아라', '거미 노래', '앞니빠진 증강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놀이와 음악>의 주제와 관련된 민요는 '강강술래'가 있다. '강강술래'는 다수의 여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 옆으로 돌아가며 노랫소리에 맞추어 춤을 춘다. 또한, '강강술래'를 하면서 '남생이놀이', '고사리꺾기', '청어여자', '기와밟기', '떡석물기', '권취새끼놀이', '대문놀이', '수건찾기' 등의 놀이가 있다.

더 알아보기

• 윤도현 밴드의 아리랑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알맞게 편곡된 '아리랑'은 1940년대 우리 역사의 슬픔과 암울함의 '아리랑'에서 2002년 월드컵이라는 세계인의 축제에서 즐기는 아리랑으로의 변화된 계기를 주었다. 원곡 아리랑의 3박자 계통의 세마치장단을 4박자의 응원가로 바꿔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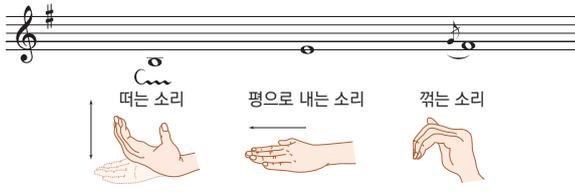
## 학습 목표

- 남도(전라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 악곡 해설

‘진도 아리랑’은 진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일원에서 여러 사람이 어울려 놀 때에 즐겨 부르는 민요이다. 장단은 세마치장단에 맞춰 부르는데, 12박의 중모리장단에 맞춰 부르기도 한다. 보통 중모리장단에 맞춰 느리게 부르다가 흥에 겨워 노래가 점점 빨라지면, 세마치장단에 맞춰 신명나게 부르게 된다. 세마치장단으로 부를 때는 ‘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각각 세마치장단 1장단을 치며 부르고, 중모리장단으로 부를 때는 ‘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중모리장단 1장단을 치며 부른다. 구성음은 ‘미·라·시’의 3음으로 되어 있고 ‘라’로 끝난다. ‘미’는 굽게 떨어주고, ‘라’는 평으로 소리 내며, ‘시’는 먼저 ‘도’를 짧게 소리 내어 꺾어주는 전형적인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다. 이 곡은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가락이 소박하고, 흥취가 있으며 구성지다. 시김새의 표현과 추임새를 삽입함으로써 다양한 창작적 시도를 해볼 수 있다.

## 교수 · 학습 계획

단계	교수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 자료 · 유의점
도입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서편제’의 ‘진도 아리랑’을 영상으로 감상한다.</li> <li>•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li> <li>• 진도 아리랑</li> </ul>
전개	악곡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자배기토리의 특징을 알아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마치장단과 중모리장단을 비교하여 알아본다.</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세마치장단</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중모리 장단</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세를 바르게 하도록 한다.</li> <li>• 각 지방 민요의 느낌이 다른 이유는 기후, 생활 습관,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li> </ul>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른다.</li> <li>•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른다.</li> </ul>	
정리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마치장단과 중모리장단에 맞춰 불러보고 느낌을 비교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에 따라 달라지는 노래의 분위기를 느끼며 부른다.</li> </ul>

## 진도 아리랑

● 학습 목표 | 남도(전라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세마치장단 남도(전라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받는 소리



아 리 아 리 랑 쓰 리 쓰 리 랑 아 라 리 가 났 네 - - - -

떠는 소리



아 - 리 랑 움 움 움 아 라 리 가 - - - - 났 네

메기는 소리



문 - 경 새 세 - 는 웬 고 - - - - 겐 가



구 부 아 아 구 부 구 부 아 눈 - 물 이 - - - - 로 다

\*장단은 세마치장단이지만 조금 느리게 부를 때는 중모리장단에 맞추어 부르기도 한다.

### 활동 1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를 알아보자.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

육자배기토리: 남도 지방의 음악적 특징으로 굽게 떨어져서 내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를 사용하여 구성하게 부른다.

### 활동 2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를 살려 불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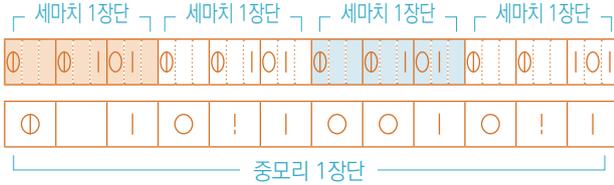


아 리 아 리 랑 쓰 리 쓰 리 랑 아 라 리 가 났 네 - - - -

교과서 활동 해설

1. 중모리장단 알아보기

• 진도 아리랑의 장단



2.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 알아보기

전라도 민요의 특징이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노래인 육자배기의 명칭을 딴 육자배기토리는 전라도 민요의 선율적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다. 토리라는 용어는 각 민요권의 선율적 특징을 나타내는 말인데, 전라도는 육자배기토리, 경상도를 포함한 강원도·함경도 등 동해안 지방은 메나라라는 민요의 전형성을 따서 메나리토리라 부른다. 경기도 지방은 경토리, 서도 지방의 토리는 수심가토리라 부른다. 육자배기토리로 불리는 지역을 보면 전라도만을 경계 삼지 않고, 인접지역 즉, 경기 남부, 충청 서부, 경상도 서·남부 등 까지 확장된다.

육자배기토리의 발성법은 경기의 서정성, 서도의 콧소리에 비하여, 극적이고 굵은 목을 눌러 내는 소리이다. ‘미’는 굽게 떨어져 내는 떠는 소리이고, ‘라’는 평평하게 소리 내며, ‘시’는 ‘도’음을 먼저 짧게 꺾어서 내는 소리이다.



▲ 시김새의 손동작 표현

더 알아보기

• 시김새

시김새는 음의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것으로, 소리를 더욱 멋스럽고, 맛깔나게 표현해 주는 요소이다. 시김새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 음악의 표현이 다채로워지며, 음악적 개성이 드러난다. 시김새는 각각의 조가 갖는 음악적 특징들을 잘 나타내주고, 기교적인 표현도 가능하다. 표현 방법으로는 음을 떨어주는 것, 순간적으로 꺾어 내는 것, 음을 밀어 올리는 것, 밀어올린 음을 다시 흘러 내리는 것 등이 있다.

• 진도 아리랑의 말붙임새



4. '진도 아리랑'의 음악적 구성 알아보기

'진도 아리랑'은 도약이 많고, 꺾는 소리와 떠는 소리가 자주 등장하여 부르는 사람의 기교를 필요로 한다. 가사에 '응응응' 부분은 아리랑의 '랑'과 이어져 연결되는 모음의 운율감을 느낄 수 있다.

선율	순차적인 선율의 진행보다는 상행과 하행이 교차로 진행되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리듬	세마치장단(중모리 장단으로 느리게 부르다가, 점점 속도가 붙으면 세마치장단으로 흥겹게 부른다).
특징	꺾는 소리가 많다. 시김새가 많이 사용되었다. 떠는 소리(ㄴ)에는 시김새 표시가 되어 있고, 기교가 많이 사용된다.

참고 자료

• 진도 아리랑의 유래

진도의 한 당골에 세습 박수가 되는 것을 비관한 총각이 있었다. 총각은 사랑하는 처녀와 혼약을 남긴 채 진도에서도 망쳐 버린다. 진도를 도망친 총각은 상민이었지만 덩치 좋고 흰칠하게 생긴 탓에 양반집에서 머슴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주인집에는 예쁜 처녀가 있었다. 이 처녀는 집 안에서 남정네를 못 보다 머슴의 사내다움을 보고, 그 총각에게 그만 반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었고, 그런 사랑 놀음은 이내 부모들에게 들통이 나서 야단이 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총각은 다시 쫓겨나게 되었고, 여기에 처녀도 보따리를 싣다. 둘은 문경고개를 넘어 다시 진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돌아와보니 옛날의 처녀는 턱을 고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부모들은 양가집 머슴리를 맞게 되었다고 야단이었다. 이 통에 기다렸던 처녀는 눈물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노래가 '진도 아리랑'이라고 했다.

구전되어 오던 '진도 아리랑'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우리나라 대금의 명수인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출신 박종기(1880~1947)선생으로 전해지고 있다.

## 학습 목표

- 동부(강원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 악곡 해설

강원도 아리랑은 영동·영서지방에서 전해지는 아리랑으로 옛모리장단에 맞춰 부른다. 옛모리장단은 3박과 2박이 섞여 있는 혼합 박자로 되어 있다. 이 장단은 판소리에서 주로 신비한 인물이 등장할 때 사용한다. 혼합 박자로 되어 있어 불규칙적인 느낌을 주며 한편으로는 균등박으로 이루어진 장단에 비해 독특하고, 색다른 느낌을 준다. 가사 내용은 아주까리와 동백을 보면,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입을 만나고 싶은 시골처녀의 순수하고 해맑은 본능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선율적인 특징은 같은 음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과 비교적 단순한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형식은 메기고 받는 소리로 되어 있어 한 소절 메기고 한 소절 받으며 노래를 한다. 구성음은 ‘미, 솔, 라, 도, 레’로 되어 있으며, 이 노래가 메나리토리의 특성을 보이는 부분은 내려가는 가락에 ‘라-솔-미’를 빠르게 흘러내리는 시김새를 사용하고 있다.

## 강원도 아리랑

● 학습 목표 | 동부(강원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옛모리장단

동부(강원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메기는 소리

아 주 까 리 동 백 아 일 - 지 마 - 라 - - -

받는 소리

누 구 를 - 궤 자 고 - - 머 리 에 기 림 -

아 리 아 리 쓰 리 쓰 리 - 아 - 라 리 - 요 - - -

아 리 아 리 - 일 씨 구 - - 노 다 가 세

활동 1 메나리토리를 알고 시김새를 살려 불러 보자.

일 - 지 마 - 라 - - - 누 구 를 - 궤 자 고 - -

메나리토리 동부 민요의 음악에 사용되는 음계(미, 솔, 라, 도, 레)로, '솔'은 주로 내려가는 가락에 사용된다.

활동 2 옛모리장단을 익히고 말붙임새를 연습해 보자.

미	주	까	리	동	백	아
①		○	○		○	
명	덕	중	중	덕	중	
3소박			2소박		3소박	

\*3소박과 2소박이 함께 쓰인다.



## 교수 · 학습 계획

단계	교수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 자료 · 유의점
도입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수 조용필이 부르는 '강원도 아리랑'을 듣고, 느낌을 이야기한다.</li> <li>•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li> <li>• 강원도 아리랑</li> </ul>
전개	악곡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강원도)민요의 특징을 알아본다.</li> <li>• 메나리토리를 알아본다.</li> <li>• 옛모리장단을 익힌다.</li> <li>- 구음으로 충분히 장단을 익힌 다음 구음과 함께 장단을 연습한다.</li> <li>• 말붙임새를 연습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 박자로 된 옛모리장단을 정확히 표현하도록 한다.</li> <li>• 옛모리장단은 3·2·3·2로 된 10박의 장단이다.</li> </ul>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모리장단에 맞추어 말붙임새를 연습한다.</li> <li>•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li> </ul>	
정리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나리토리의 시김새를 살려 옛모리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김새가 매끄럽게 표현되도록 한다.</li> </ul>

교과서 활동 해설

1. '강원도 아리랑'의 가락의 특징 알아보기

구성음은 '미, 솔, 라, 도, 레'로 되어 있다. 상행하는 가락에서는 '미, 라, 도, 레'의 4음이 주로 사용되고, 하행하는 가락에서는 '레, 도, 라, 솔, 미'의 5음이 사용되고 있다. 시김새의 표현은 내려가는 가락에서 '레-도-라', '라-솔-미'를 빠르게 흘러내리는 표현과 '레'를 꺾어주는 표현 등이 나타나고, 낮은 음에서 순차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가락이 많다.

옛모리장단 동부(강원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2. 메나리토리 알아보기

함경도·강원도·경상도 지역의 음악에 사용되는 음계로 구성음은 '미, 솔, 라, 도, 레'이며 '미, 라, 도'의 3음을 중심으로 '솔, 레'는 장식음 또는 경과음으로 연주된다. 음의 진행에 있어 상행할 때는 주로 3음으로 도약 진행을 하고, 하행할 때는 '솔'을 경과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3. 장단에 맞추어 말붙임새 익히기

· 강원도 아리랑의 말붙임새와 장단

아	주	까	리		동	백	아		
열					지	마			
누					구	를			
					꺾				
					자	고			
머	리	에	기		름				
아	리	아	리		쓰	리	쓰	리	
아		라	리		요				

머	리	에	기		름				
---	---	---	---	--	---	--	--	--	--

아	리	아	리		쓰	리	쓰	리	
---	---	---	---	--	---	---	---	---	--

아		라	리		요				
---	--	---	---	--	---	--	--	--	--

└────────────────── 옛모리장단 1장단 ─────────────────┘

✓ Tip '강원도 아리랑'은 악곡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3분박과 2분박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빠르기를 천천히 연습할 것을 권장한다.

4. 옛모리장단 알아보기

옛모리장단은 3분박(♪♪♪)과 2분박(♪♪)이 혼합, 반복되어 10박이 한 장단이 된다. 즉, 장단의 구조가 3·2·3·2 혹은 3·2·2·3 등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구조에서 벗어나는 박이 형성된다. 서양 음악의 5/8·5/4박자와 같은 혼합 박자의 개념과 유사하다.

⊙		○	○		○
덩	덕	쿵	쿵	덕	쿵

└── 3소박 ─┘ └── 2소박 ─┘ └── 3소박 ─┘ └── 2소박 ─┘

5. 옛모리장단의 구음 연습하기

박	1	2	3	4	5	6	7	8	9	10
구호	⊙			○		○			○	
구음	덩			덕		쿵			덕	쿵

참고 자료

· '강원도 아리랑'의 유래

강원도 아리랑은 '자진아리'라고 하던 것으로 영서·인제 지방 일대에서는 '땃목 아리랑'으로도 알려져 있다. 강원도 일대에서 부른 '자진아라리'가 서울의 소리꾼들이 부르면서 강원도 아리랑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유성기 음반에도 많이 취입하게 되었다. 강원도 아리랑은 강원도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자진아라리'와 비슷하나 시김새가 좀 다르게 변하였다. 또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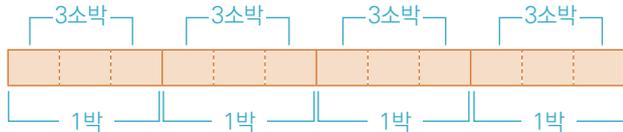
## 학습 목표

- 경기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 악곡 해설

‘경복궁타령’은 조선말 1865년(고종 2년)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할 때 생긴 노래로, 팔도에서 동원된 장정들의 고달픔을 노래했으며, 흥선 대원군의 무리한 공사 강행을 풍자한 노래이다. 장단은 자진타령장단을 사용하는데, 자진타령은 빠르게 몰아나가는 장단으로 북는 타령장단이라고도 불리며, 3소박 4박 장단이다. 음계는 ‘라, 도, 레, 미, 솔’의 5음 음계로 구성되어 있다. 형식은 한 사람이 메기면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아서 노래하는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힘차고 밝으며 경쾌한 노래이다.

- 자진타령장단의 구조(3소박 4박 장단)



## 경복궁타령

● 학습 목표 | 경기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자진타령장단

경기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받는 소리      메기는 소리

에 - - - 남 분 음 열 고 -

과 두 - 들 지 니 - - 계 명 - 산 천 이 밤 아 - - 온 - 다

받는 소리

에 - - - 에 - 해 아 -

에 에 - - 해 아 - 일 뽕 뽕 거 리 고 방 아 - 르 - - 다

파루 조선시대에 동행금지 해제를 위해 중을 치던 일, 계명산천 앞이 물이 빛이 무렵의 자연.

활동 1 자진타령장단에 맞춰 불러 보자.

기본 장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변형 장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활동 2 ‘경복궁타령’의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_\_\_\_\_

\_\_\_\_\_

\_\_\_\_\_



## 교수 · 학습 계획

단계	교수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 자료 · 유의점
도입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복궁 사진을 보여 주며 질문한다.</li> <li>- 사진을 보고 직접 가본 경험이나 사진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li> <li>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컴퓨터</li> <li>● 경복궁타령</li> </ul>
전개	악곡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복궁타령’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본다.</li> <li>경기 민요의 특징을 알아본다.</li> <li>자진타령장단을 알아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의 뜻을 알아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진타령장단을 익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진타령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li> <li>메기는 부분의 가사를 즉흥적으로 창작하여 부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을 하면서 음악을 통해 힘을 얻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li> </ul>
정리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민요의 특징을 정리한다.</li> <li>경기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른다.</li> </ul>	

## 교과서 활동 해설

### 1. '경복궁타령'의 가사

1절: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후렴: 에 에헤이에이야 얼릴털거리고 방아로다.  
 2절: 을축사월 갑자일에 경복궁을 이룩하세.  
 3절: 도변수의 거동을 보라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4절: 단산봉황은 죽실을 물고 벽오동 속으로 넘나든다.  
 5절: 남산하고 십이봉에 오작 한 쌍이 훨훨 날아든다.  
 6절: 왜철쭉 진달화 노간죽하니 맨드라미 봉선화가 영산  
 홍이로다. <후략>

### 2. '경복궁타령'의 가사의 의미 이해하기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라는 가사에 나타난 경복궁의 ‘남문’은 오늘날의 광화문이라고도 하며, 궁성이 정문이다. ‘파루’는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의 해제를 알리기 위해 종(쇠북)을 치던 일이다. ‘바라’·‘바래’는 파루의 변한 말이다. 밤 10시경 종을 28번 쳐서 인정(人定)을 알리면 도성의 문이 닫혀 통행 금지가 시작되고, 새벽 4시경인 오경삼점(五更三點)에 종을 33번 쳐서 파루를 알리면, 도성의 문이 열리고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계명산천’은 ‘닭의 울음소리에 산천이 밝아 온다’라는 뜻을 지닌다.

### 3. '경복궁타령'의 역사적 배경 알아보기

조선 말기에는 흥선 대원군이 통치체제의 재정비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 중 하나로 임진왜란 때 불타 버린 경복궁을 중건함으로써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되찾으려 하였다. 이를 위해 강제로 모금을 하고, 부역을 하게 하여 양반과 백성의 원성이 높았으나, 이를 극복하고 흥겨운 민요로 승화한 노래이다. 가사 내용 중 12절은 ‘경복궁 역사(役事)가 언제나 끝나 그리던 가숙을 만나나 볼까.’를 보면 가족을 뜻하며, 일하는 백성들과 노동자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복궁 중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7절 ‘우광쿵쿵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는데 회방아 짙는 소리다.’의 가사를 보면 경복궁 짓는데 큰 소리가 난다는 말로 자연 훼손의 소음을 이렇게 풍자하였다.

### 4. 경기 민요의 특징 알아보기

경기 민요는 경토리의 가락이 주로 사용되며 서울·경기도·충청도 일부지역에서 불리는 민요를 말한다. 경기 민요의 특징은 긍정적인 내용의 가사가 많으며, 흥겹고 경쾌하고 밝은 느낌의 민요가 발달했다. 경기 민요에 속하는 곡은 ‘아리랑’, ‘도라지타령’, ‘오봉산타령’, ‘방아타령’, ‘자

진방아타령’, ‘경복궁타령’, ‘닐리리야’, ‘군밤타령’, ‘박연폭포’ 등이 있다. 대체로 노래가 5음 음계 진경토리(평조)와 반경토리(계면조)로 구성되었고, 선율은 주로 순차 진행하며 소리를 깊게 떨지 않는다. 장단은 굿거리장단이나 세마치장단을 즐겨 사용하고, 비교적 맑은 소리의 가벼운 창법을 구사하여 밝고 흥겨운 느낌의 노래가 많다. 경기 민요는 서도 민요나 전라도 민요에 비하여 대체로 맑고 깨끗하며 경쾌하고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 민요 창자들의 음색 또는 성질은 전라도의 굽고, 극적으로 목을 놀려내는 소리와 서도의 콧소리에 비하여 대체로 부드럽고 유창하며 서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 경토리

## 참고 자료

### · 경복궁 근정전

경복궁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즉위 3년째인 1394년에 390여 칸 규모로 지어져 조선 전기에 정궁으로 사용되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 때 불에 탄 후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다. 경복궁의 문제는 임진왜란 직후부터 논의 되었으나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경복궁이 다시 중건된 것을 소실된 지 약 270년이 지난 1867년이였다. 흥선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여느 궁궐의 규모나 격식을 훨씬 능가하는 7,225칸 반 크기로 경복궁 중건을 시행하였다. 궁이 완성된 이듬해 고종은 거처를 경복궁으로 옮겼다. 그러나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경제 혼란이 야기되었고, 양반의 묘지림에서 함부로 나무를 벌채하고, 백성들을 토목 공사에 동원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 경복궁의 모습

**학습 목표**

- 동부(경상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악곡 해설**

경상도 지역에 속하는 동부 민요로 어부들이 부르는 어업 노동요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뱃노래가 있는데, 노동의 형태에 따라 노래도 다르며, 같은 종류의 노래일지라도 지방마다 다르다. 이 곡은 흥겨운듯하면서도 애조를 띠고 있으며, 가사 내용이 바다 위에서 힘차게 노를 저어 가는 이들의 흥과 고단함이 함께 담겨 있다. 장단은 굿거리장단과 율동적인 가락이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내며 구성음은 ‘미, 솔, 라, 도, 레’의 5음 음계로 메나리토리로 되어있다. 종지음은 ‘라’이며, 하행 시에만 ‘솔’음이 출현한다. 굿거리장단으로 부르다가 흥이 나면 빠른 장단의 자진모리장단으로 자진뱃노래를 이어서 부른다. 배 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부르는 긴자진 형식의 노래이다. 긴자진 형식이란 느린(긴)곡을 먼저 연주하고, 빠른(자진)곡을 이어 연주하여 노래가 짝을 이루는 형식이다. 예로부터 뱃노래-자진뱃노래, 육자배기-자진육자배기, 농부가-자진농부가, 방아타령-자진방아타령, 강강술래-자진강강술래 등이 있다.

**교수 · 학습 계획**

단계	교수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 자료 · 유의점
도입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창이 부르는 ‘뱃노래’와 대중가수가 부르는 ‘뱃노래’의 동영상을 보여 주며 느낌을 이야기한다.</li> <li>•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li> <li>• 뱃노래</li> </ul>
전개	악곡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경상도) 민요의 특징을 알아본다.</li> <li>• 굿거리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을 익힌다.</li> <li>•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li> </ul> <p>◀ 기본 장단</p> <p>◀ 변형 장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고기 잡는 동작, 노 젓는 동작, 그물 당기는 동작, 닻 올리는 동작 등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율선의 흐름을 가락선 악보로 표현한다.</li> <li>• 동부(경상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를 부른다.</li> <li>• 모듬을 나누어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를 부른다.</li> <li>• 가사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한다.</li> </ul>	
정리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표현을 하며, 동부(경상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표현을 하며 노래를 부른다.</li> </ul>

**뱃노래**

● 학습 목표 | 동부(경상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굿거리장단

동부(경상도) 민요 | 허희병 편곡 | 국립국악원 악보

mf 밝는 소리  
이 기 야 디 여 - 차  
이 기 야 디 여 - 이 기 - 여 - 차 뱃 놀 이 가 잔 다  
메기는 소리  
부 밧 치 는 파 도 - 소 - 리 잠 을 - 제 우 니  
들 려 오 는 - 노 - 소 - 리 처 럼 도 하 구 나

함두 1 굿거리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을 익혀 보자.

기본 장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변형 장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함두 2 가사에 맞게 신체 표현을 하며 불러 보자.

## 학습 목표

- 동부(함경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 악곡 해설

신고산타령은 ‘어랑 어랑 어허야’의 후렴구를 따라 ‘어랑 타령’이라고도 하며, 구성지고 소박한 향토색을 풍기는 민요로 1900년대의 개화기의 노래라 할 수 있다. 신고산은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역 부근의 마을 이름이다. 원래 ‘고산’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철도가 생기고 역이 들어서면서 옛날의 고산은 구고산이 되고 역이 들어선 곳이 신고산이 되었다. ‘삼수’, ‘갑산’은 함경도 지방에 있는 지명이다. 구성음은 ‘미, 솔, 라, 도, 레’로 되어 있으며, 메나리토리의 특성을 보이는 부분은 내려가는 가락에 ‘라-솔-미’를 빠르게 흘러내리는 시김새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높은 음에서 시작하여 차례로 내려오는 것이다. 받는 부분으로 가사 ‘어랑 어랑’은 당김음을 살려 흥겹고 경쾌하게 부르고 있고, 가사 ‘어허야·더허야’는 당김음의 리듬 치기로 흥겨운 선율의 멋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신고산타령은 자진모리장단과 자진타령장단으로 부를 수 있는데, 말붙임이 자진타령에 더 적합하다.

## 신고산타령

● 학습 목표 : 동부(함경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자진타령장단

동부(함경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메기는 소리

\*신고산은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역 부근 마을 이름이다. 원래 고산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철도가 생기고 역이 들어서면서 옛날 고산은 구고산이 되고 역이 들어선 곳이 신고산이 되었다.

활동 1 동부 민요 중 함경도 지방 민요의 특징을 살려 불러 보자.

\*흘러내리는 가락을 자연스럽게 표현.

활동 2 장단에 유의하여 불러 보자.

## 교수 · 학습 계획

단계	교수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 자료 · 유의점
도입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창이 부르는 ‘신고산타령’을 듣고 느낌을 이야기한다.</li> <li>•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li> <li>• 신고산타령</li> </ul>
전개	악곡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함경도) 민요의 특징을 알아본다.</li> <li>• 자진타령장단을 익힌다.</li> </ul> <p>▲ 자진타령장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에 유의하여 노래 부르도록 한다.</li> </ul>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부(함경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를 부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흘러내리는 가락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li> </ul>
정리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에 맞춰 동부(함경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를 부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나리토리의 특징을 살려 노래 한다.</li> </ul>

**학습 목표**

- 제주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악곡 해설**

‘오돌또기’는 메기는 소리 4장단과 받는 소리 4장단의 선 후창 형식으로 부르며, 앞뒤소리가 균형이 잡힌 장절 형식(章節形式)으로 여흥을 즐길 때 불렀던 ‘유희요’이다. 오돌또기의 사설에는 한라산, 서귀포 해녀, 산포조어, 성산일출, 사봉낙조 등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치가 등장한다. 신재효본(申在孝本) 흥부가 및 가루지기타령에 오돌또기 사설과 비슷한 삽입가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판소리와 의 관련성도 깊으며, 본포 또한 전국적이었던 민요로 추정된다. 구성음은 5음으로 경기 민요의 음구성과 같지만, 음의 기능과 발성법 등에는 차이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부녀자들이 노래를 부를 때 물독인 ‘허벅’을 두들기거나 물바가지인 ‘태왁’을 물 위에 띄워놓고, 나뭇가지로 친다. 이때에 ‘허벅’과 ‘태왁’에서 공명이 되어 나는 소리는 맑고 아름다운 향토적인 맛이 난다. 제주도 민요는 경기 민요와 비슷하나, 시김새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경기 민요가 경쾌한 데 비해, 제주 민요는 다소 구슬프게 들린다.

**오돌또기**

● 학습 목표 | 제주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굿거리장단

제주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메기는 소리

\*오돌또기는 여흥을 즐길 때 불렀던 ‘유희요’이다. 오돌또기의 사설에는 한라산, 서귀포 해녀, 산포조어, 성산일출, 사봉낙조 등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가 등장한다.

활동 1 제주 민요의 특징과 종류를 알아보자.

민요	특징	종류
오돌또기	생활 속의 도구를 반주 악기로 사용하였다. 예) 물허벅, 태왁 등	놀이 부르는 소리 고기잡이 소리 농사짓기 소리

활동 2 제주 민요의 특징을 살려 불러 보자.

**교수 · 학습 계획**

단계	교수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 자료 · 유의점
도입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li> <li>•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li> <li>•  오돌또기</li> </ul>
전개	악곡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민요의 특징과 종류를 알아본다.</li> <li>- 제주 민요의 음계는 경기 민요와 비슷하고, 지역 특유의 방언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느낌을 주며, 어업과 관련된 노래가 많다.</li> <li>• 제주 사투리에 대해 알아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민요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 조사해 본다.</li> </ul>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굿거리장단을 익힌다.</li> <li>• 제주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를 부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뭉침새에 유의하여 노래 부르도록 한다.</li> </ul>
정리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굿거리장단을 익힌다.</li> </ul>

**교과서 활동 해설**

**1. 제주 민요의 특징 알아보기**

제주 민요의 음계는 경기 민요와 비슷하고, 지역 특유의 방언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느낌을 주며, 어업과 관련된 노래가 많다. 제주 민요는 소리 내는 기법, 선율의 흐름, 음과 가사의 결합, 중지 형태 등에서 다른 지역의 민요들과 전반적인 차이가 있다. 경기 지역의 민요는 선율의 흐름이 다소 도약적인 선율이 많고, 유연하고 경쾌하게 진행되며, 서도 민요는 대체로 높은 음으로 진행하되 낮은 음에서 차츰 높은 음으로 소리 지르듯 부르다가 다시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진행되는 기복이 있고, 특정 음을 떠는 현상이 빈번하다. 이에 비해 제주 민요는 전반적으로 애잔하고 담담한 느낌을 주고, 순차적인 선율의 흐름을 갖고 있다. 대체로 순차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격하게 떠는 음이나 꺾는 음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 민요처럼 잔가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선율을 울동감 있게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잔가락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경기 민요와 유사하지만, 제주 민요의 시김새는 화려하지 않고, 담담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제주 민요 특유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한편, 이러한 순순한 진행을 하면서도 한 음절에 다수의 음표가 주어지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제주 민요의 특징과 종류 알아보기**

제주 민요의 특징	민요	종류
생활 속의 도구를 반주 악기로 사용하였다.	오돌또기	놀이 부르는 소리
어업과 관련된 노래가 많다.	멀치 후리는 소리, 해녀 노 젓는 소리	고기잡이 소리
	흑방에 부수는 소리, 검질 매는 소리	농사짓기 소리

**3. 제주도 사투리 알아보기**

제주도 사투리	뜻
너영나영	너하고 나하고
흔저옵서예	어서오세요
놀멍 놀멍 뵈서	천천히 보세요
독세기	달걀
맨도롱 하우파?	따뜻합니까?

**참고 자료**

**1. ‘오돌또기’ 설화**

아주 오랜 옛날 제주도의 어느 마을에 김복수라는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게 되었다. 김복수가 떠나는 날, 제주를 벗어날 즈음에 폭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고, 표류해 도착한 땅은 ‘안남’이라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유구에서 표류해 온 임춘향이라는 처녀를 만나서 정을 나누게 되어 부부의 연을 맺고, 3남 3녀의 자식까지 얻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남 땅에서 일본의 사신이 오게 되었다. 김복수가 일본 사신에게 자신들을 데려다 줄 것을 청해 일본에 도착한 김복수는 그 곳에서 임춘향의 오빠 임춘영을 만났다. 김복수와 임춘영이 유구로 떠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항해 도중에 제주도를 발견한 김복수가 반가운 마음에 띄워 내어 항해 도중에 식수가 떨어질 것이니, 자신이 제주에 내려 식수를 마련해 오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김복수가 조막배를 타고 제주 땅을 밟게 되었고, 제주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살던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났다. 한편, 김복수를 기다리던 임춘영 일행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를 놔두고 유구를 향해 떠나버렸다. 김복수가 아내와 해후할 기약이 없어지자, 아내가 그리워지면 바닷가에 나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오돌또기 저기 춘향 나온다/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여도 당실 연자버리고/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마을 사람들은 김복수의 구슬픈 노래를 듣기 위해 모여들어 수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김복수를 동정해 흐느껴 우는 경우도 많았다. 이윽고 이 노래는 제주 전역으로 퍼져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되었다.

**더 알아보기**

**• 제주를 주제로 한 창작 국악곡**

- 제주의 왕자(Prince of Jeju) 양방언 작곡  
 작곡자가 제주를 처음 찾았을 때 본 검은 현무암과 오름, 검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과 소리에 반해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나름대로 상상하며 쓴 곡이다. 태평소, 장구 등 국악기와 오케스트라 연주가 어우러진 곡이다. 시작 부분의 태평소 가락은 제주 바다의 시원한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 제주의 물허벅**



제주도에서는 과거에 육지와 달리 물허벅을 등에 지고 식수를 날랐다. 물허벅은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면 은은한 울림을 내고, 볼록한 배를 조롱박으로 두드리면 높은 소리를 내는 제주도 특유의 타악기이기도 하다.

▲ 물허벅

# 1차시 동창이 밝았느냐(우조 초수대엽)

## 학습 목표

- 가곡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악곡 해설

‘동창이 밝았느냐’는 가곡 중 처음 부르는 곡으로 ‘초수대엽’이라고도 한다. ‘초수대엽’은 곡의 순서를 의미할 때는 초수(初數)로 첫 번째 곡을 의미하며, 일부에서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삭(數)으로 사용하여 ‘삭대엽’이라고도 한다. 가곡은 시조시를 가사로 하여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다. 형식은 5장으로 전주에 해당하는 대여음과 간주곡에 해당하는 중여음을 넣어서 대여음, 1장, 2장, 3장, 중여음, 4장,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여음은 각 악곡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장단은 16박을 한 단위로 하는 기본 장단과 기본 장단의 변형인 10박을 한 단위로 하는 편장단이 있다. 기본 장단인 16박은 ‘초수대엽’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가곡에 쓰인다. 음계는 우조, 즉 평조와 계면조로 되어있다. 평조는 황종·태주·중려·임중·남려의 5음 음계이고, 계면조는 황종·중려·임중의 3음 음계이다. 남창, 여창, 남녀창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교수 · 학습 계획

단계	교수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 자료 · 유의점
도입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창이 밝았느냐’의 시조창과 ‘우조 초수대엽’을 듣고 느낌을 이야기한다.</li> <li>•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li> <li>• 동창이 밝았느냐</li> </ul>
전개	악곡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곡의 형식, 장단, 반주를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 5장 형식(대여음, 1장, 2장, 3장, 중여음, 4장, 5장)</li> <li>- 장단: 16박, 10박</li> <li>- 반주: 관현악 반주</li> </ul> </li> <li>• 시조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곡과 시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노래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와 관현악 반주의 어울림을 느끼며 감상한다.</li> <li>• 가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감상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곡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정리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조와 가곡의 연주 형태와 음악적 특징을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조와 가곡의 연주 형태 및 음악적 특징을 알아본다.</li> </ul>

## 동창이 밝았느냐 (우조 초수대엽)

● 학습 목표 | 가곡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남구만 작시

가사 동창  
 부르기 동차 - 아 - - 양 이 - 이 - - 이 - - 이 - -

밤  
 바 알 가 - 아 - - 아 - - - 아 - 아 - - 아 - - 앳 느 -

나  
 - - 으 - - - 나 - 아 - - -

<후략>

활동 1 노래와 관현악 반주의 어울림을 느끼며 감상해 보자.

활동 2 시조와 가곡을 비교하여 반란을 적어 보자.

구분	시 조	가 곡
내용	조선 시대 후기에 발생한 음악으로, 시조시를 가사로 일정한 가락에 얹어 부르는 노래이다.	전문 소리꾼이 시조시를 가사로 하여 다양한 가락에 얹어 부르는 노래로, 남창, 여창, 남녀창으로 나뉜다.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음계	3음 음계, 계면조	평조와 계면조
장단	5박과 8박 장단	
형식	3장 형식	
	초창 —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차리 우지진다	대여음(간주) 1장 — 동창이 밝았느냐 2장 — 노고차리 우지진다
	중창 — 상기 아니 알았느냐	3장 — 소치는 어찌 놀은 상기 아니 알았느냐
	종창 — 재네며 사래 긴 밭을 하니(생략)	중여음(간주) 4장 — 재네며 5장 — 사래 긴 밭을 연재 길러 하니
반주	장구나 간단한 가락 악기, 무릎장단	

60

## 교과서 활동 해설

### • 시조와 가곡의 특징을 비교하며 감상하기

	시조	가곡
가사	시조시	시조시
음계	3음 음계, 계면조	우조(평조)와 계면조
장단	5박과 8박 장단	16박과 10박 장단
형식	3장 형식 (초장, 중장, 종장)	5장 형식 (1장, 2장, 3장, 4장, 5장)
반주	장구나 간단한 가락 악기, 무릎장단	관현악

## 참고 자료

### 1. 가곡의 종류

가곡은 우조와 계면조가 있고, 성별에 따라 남창과 여창으로 구분된다. 남창 우조는 11곡, 계면조는 13곡, 반우 반계는 2곡으로 남창은 모두 26곡이고, 여창 우조는 5곡, 계면조는 7곡, 반우 반계는 3곡으로 모두 15곡이다. 가곡은 맨 마지막 곡인 '태평가'만 남녀창이 함께 연주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곡은 남창이나 여창의 독창으로 연주한다. 가곡은 첫 곡인 '우조 초수대엽'부터 마지막곡인 '태평가'까지 이어서 노래한다.

### 2. 가곡의 형식

가곡은 시조시를 노래 부르는 성악 부분과 악기의 반주로 구성되는 대어음·중어음으로 이루어진다. 대어음은 전주나 후주에 해당하고, 중어음은 간주에 해당한다. '우조 초수대엽'·'계면조 초수대엽'·'태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곡은 대어음으로 전주를 한다. 가곡은 반주가 없으면 연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특정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계승되었다. 가곡의 노래 부분은 모두 5장으로 구분되는데, 이 점은 같은 시조시를 노래 부르면서도 3장으로 형식을 구분하는 시조창과 차이가 있다.

### 3. 가곡의 장단

가곡의 장단은 16박의 기본 장단과 10박의 편장단으로 구성된다. 16박 한 장단인 가곡은 10박 한 장단보다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데, 첫 곡인 '우조 초수대엽'은 1분에 40박이며, 가곡 한 바탕 중 가장 느린 '이수대엽'은 1분에 20박 정도의 빠르기이다. '이수대엽' 이후에는 차츰 빨라지는 구조이다. 즉, '중거'·'평거'·'두거'의 순으로 빨라져서 '두거'에 이르면 '초수대엽'의 빠르기를 회복하고, '삼수대엽'에서는 1분에 45박 정도의 빠르기가 된다. 이후 소용을 거쳐

'농'과 '낙'은 1분에 60박 정도의 빠르기가 된다. 그러다가 노랫말의 글자 수가 크게 늘어난 사설시조를 노래하는 '편'에 이르면 1분에 70박이 된다. 이 때 단순히 빠르기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곡의 장단에도 변화가 생긴다.

### 4. 가곡의 조와 음계

가곡의 조는 우조와 계면조의 두 가지이다. 우조는 황종·태주·중려·임종·남려의 5음 음계이고, 계면조는 황종·중려·임종의 3음 음계이다. 가곡 중 우조에 속하는 악곡으로는 '우룡'·'우락'·'연락'·'우편' 등이 있으며, 계면조 악곡으로는 '언룡'·'평룡'·'계락'·'편수대엽'·'언편'·'태평가' 등이 있다. 그리고 한 곡 안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악조가 서로 다른 반우반계의 악곡으로는 '반엽'·'편락'·'환계락' 등이 있다. 반우반계의 악곡은 처음에는 우조로 시작하지만, 제3장이나 중어음에서 계면조로 바뀐다. '계락'과 '평룡'은 반우반계라 불리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계면조로 연주되다가 제5장에서 우조로 바뀐 다음, 뒤따르는 우조의 악곡으로 연결된다. 가곡의 음역은 대체로 두 옥타브를 넘지 않으며, 노래 선율의 최고음은 청중려이다. 최저음은 우조와 계면조가 서로 다르다. 우조에서는 탁태주이고, 계면조에서는 탁중려이다. 최고음과 최저음은 가곡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된다.

### 5. 가곡의 창법

비교적 느리게 연주하면서 세련된 노랫말을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가곡의 창법은 복식 호흡에 의한 창법이다. 가곡에서 노랫말을 발음 할 때 특이한 것은 모음의 발성이다. 예를 들어 '아' 발음은 '아으'로 발음하는데, 이는 소리를 무겁고 진중하게 내기 위함이다. 또한 '애'나 '의'와 같은 이중모음이나 복모음 등의 경우는 '아으이' 또는 '으이' 등으로 모음을 나누어 노래하며, 같은 모음을 여러 음에 걸쳐 길게 노래할 경우는 'ㅎ' 음가를 넣어 '하'나 '후'처럼 소리 낸다.

### 6. 청성자진한잎

가곡의 마지막에 부르는 태평가를 변주한 기악 독주곡으로 대금과 단소의 음역에 알맞게 변주한 곡이다. 청성(淸聲)은 높은 음을 뜻하는 말로 이 곡이 주로 높은 음역에서 연주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며 '자진한잎'은 빠르다는 뜻의 '자진'과 악곡을 뜻하는 큰 잎사귀라는 뜻의 '한잎'이 모인 단어이다. 대금이나 단소 등의 관악기에서 낼 수 있는 길게 뻗는 소리와 관악기 특유의 시김새가 잘 어우러져 맑고 유창한 느낌을 주는 음악이다. 단소의 '청성자진한잎'은 단소 특유의 영롱한 잔가락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단소의 소박하고 영롱한 표현을 느낄 수 있다.

학습 목표

- 악기 편성과 연음 형식을 알고 감상한다.

악곡 해설

수제천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정악곡으로 악기 편성은 삼현육각에 아쟁과 소금이 추가된 형태의 관악 합주곡이다. 피리, 대금, 소금과 같은 관악기 외에 해금과 아쟁 같은 현악기도 함께 연주 되는 관악 합주 편성이다. 수제천은 매우 느리면서 불규칙한 박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느리면서도 불규칙한 박자 구조는 궁중을 중심으로 연주되었던 음악에 대체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는 처용무의 반주 음악과 연주용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순수 기악 음악으로서 더욱 많이 연주되고 있다. 수제천은 장중하고 화려한 가락과 함께 연음기법을 통한 여백의 미, 장단의 유동적인 완결로 인해 청중과의 교감을 증대시키는 대표곡 중 하나이다. 연음 형식은 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다 쉬는 동안 대금이나 다른 악기가 계속 가락을 연주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프랑스에서 열린 제1회 유네스코 아시아 음악제 전통 음악 부문에서 최우수 악곡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수제천

학습 목표 | 악기 편성과 연음 형식을 알고 감상한다.

'수제천'은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궁중 음악으로 연음 형식의 매우 느리면서 불규칙한 박자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백제의 가요인 '정음사'를 노래하던 성악곡을 관악 합주곡으로 만든 것으로, 4장으로 구성된 계면조이며 '정음'이라고도 한다.



**악기 편성** 소금, 대금, 향피리, 해금, 아쟁, 장구, 박, 좌고 등으로 편성된다.

**연음 형식** 피리가 주된 가락을 연주하다가 쉬는 동안 대금이나 다른 악기가 이어서 연주하는 형식이다.

활동 1 | 악기 편성과 연음 형식을 알고 감상해 보자.

♩ = 30

(연음 부분)

활동 2 | '수제천'을 반주 음악으로 하는 '처용무'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처용무 공연 장면

활동 3 | 백제 가요 '정음사'를 알아보자.

---



---



---



---

교수 · 학습 계획

단계	교수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 자료 · 유의점
도입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제천' 음원과 함께 왕의 행차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 주고, 느낌을 이야기한다.</li> <li>•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li> <li>• CD 수제천</li> </ul>
전개	악곡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제천의 악기 편성을 알아본다.</li> <li>• 연음 형식을 알아본다.</li> <li>• 수제천을 반주 음악으로 하는 '처용무'를 알아본다.</li> <li>• '정음사'에 대해 알아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음 형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음 형식을 이해하고 감상한다.</li> </ul> <p>(연음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제천의 연음 형식을 감상해 보고, 피리 선율과 대금 선율의 가락과 음색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li> </ul>
정리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제천의 악기 편성과 연음 형식에 대해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기 편성과 연음 형식을 이해하도록 한다.</li> </ul>

**교과서 활동 해설**

**1. 수제천의 기원 알아보기**

수제천은 '수명이 하늘처럼 영원하기를 기원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궁중 음악으로 정음사에서 유래하였다. 정음사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시대의 노래이며, 행상을 하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걱정하며 부르던 노래이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 아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그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의 가사로 되어 있다. 원래의 수제천은 가면 무용에 해당하는 '처용무'와 노래 '정음사'를 같이 하던 성악곡이었으나, 가사가 없어지고 향피리·소금·대금·해금·아쟁·좌고·장구 등으로 연주하는 관악 합주곡으로 바뀌었다.

**2. 연음 형식 알아보기**

'수제천'은 초장·2장·3장·4장의 기승전결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느 정악곡과는 다른 '연음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음 형식은 '음을 이어준다.'는 뜻으로, 합주를 할 때 주선율을 연주하던 향피리가 잠시 쉬는 동안, 다른 악기들(대금, 소금, 해금 등)이 주선율을 계속 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체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듯이 들리게 되며, 이러한 음악 형태는 주로 기악곡에서 나타나는 연주 형태이다.

**3. 처용무 알아보기**

신라 헌강왕 때 '처용설화'에 기원을 둔 춤으로 가면 무용이다. 처용무는 민간에서는 신앙성을 띤 주술 전승이며, 궁중에서는 중요한 의식에 사용되는 정재로 천 년이 넘는 향악정재이다. 또한 궁중에서는 사악한 귀신과 병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처용탈을 쓰고 구나를 하는 나례(儺禮)의식 중 하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화합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궁중의 행사인 연향에서도 행해졌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처용무는 독무로 추어졌으나 기록이 없으며, 조선의 세종 때 개찬되어 오방처용무(五方處容舞)가 현재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

 **더 알아보기**

**• 처용설화**

처용설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49대 헌강왕이 개운포를 지나는데, 깜깜해지는 변괴가 일어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다. 왕은 용왕을 달래기 위해 절(현재 망해사)을 지어 주기로 하였다. 그러자 곧 안개가 걷히면서 용왕이 나타나 왕에게 감사하고, 자신의 일곱 아들 중 하

나인 처용을 바쳤다. 어느날 처용이 밤늦게 자기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처용의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역신이 흡모하여 사람으로 변해서 밤에 몰래 동침한 것이다. 처용은 이 광경을 보고 난 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나왔다. 그때 역신이 본 모습을 드러내어 처용의 앞에 꿇어 앉아 말하기를 "내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이 노여워하지 않음에 감동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귀를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4. 백제 가요 '정음사' 알아보기**

'정음사'의 가사	해석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로롱디리	달남아, 높이 좀 솟아서 어귀야 멀리 좀 비취주세요 어귀야 어강도리 아아 다롱디리
저제 녀러신고요 어귀여 즌드를 드대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시장에 계신가요? 어귀야 진 데를 디디겠네요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내 가는대 검그랄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디다 놓고 오세요 어귀야 당신 가는대 저물겠네요 어귀야 어강도리 아아 다롱디리

**참고 자료**

**수제천의 일반적인 악기 편성**

소금   대금   향피리   향피리   아쟁   해금   장고   좌고

**수제천의 확대된 악기 편성**

대금   대금   대금   대금   향피리   향피리   향피리   향피리   좌고  
 소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향피리   향피리   향피리   장고  
 해금   해금   해금   해금   해금   해금   해금   해금  
 아쟁   아쟁   박

**학습 목표**

- 한배에 따른 형식의 변화를 알고 감상한다.

**악곡 해설**

‘영산회상’은 ‘영산회상불보살’이라는 불교 가사를 가진 성악곡이었으나, 가사는 없어지고 기악곡으로만 연주되는 음악이다. 원래의 영산회상은 현행 영산회상의 상령산 1곡에 해당하지만, 기악곡으로 변화되면서 상령산에 이어 중령산, 세령산, 가락달이의 변주곡이 첨가 되어 모음곡으로 늘어났다. 그 후에 삼현 도드리와 그 변주곡인 하현도드리, 그리고 염불, 타령, 군악의 5곡이 더 첨가되어 현재의 9곡으로 만들어졌다. ‘영산회상’은 조선 후기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 음악으로 현재는 모음곡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악기 편성과 쓰임에 따라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현악 영산회상’,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관악 영산회상’,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평조회상’의 세 종류 악곡이 있다. 느린 장단에서 점차 빠른 장단으로 진행되는 한배에 따른 형식의 음악이며, 일반적으로 ‘영산회상’이라고 하면 ‘현악 영산회상’을 가리킨다. ‘현악 영산회상’은 거문고 선율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문고회상’이라고도 한다. ‘현악 영산회상’을 4도 낮게 이조한 것이 ‘평조회상’이다.

**영산회상**

6 학습 목표 | 한배에 따른 형식의 변화를 알고 감상한다.

‘영산회상’은 ‘영산회상불보살’이라는 불교 가사를 가진 성악곡이었으나, 가사는 없어지고 모음곡 형태의 기악곡으로 연주되고 있다. 악기 편성과 쓰임에 따라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현악 영산회상’,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관악 영산회상’,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평조회상’의 세 종류 악곡이 있으며, 느린 장단에서 점차 빠른 장단으로 진행되는 한배에 따른 형식의 음악이다.



**한배에 따른 형식** 느린 곡으로 시작하여 점점 빠른 곡으로 이어가는 형식을 말하며 ‘한배’란 빠르기를 뜻한다.

**활동 1** 영산회상의 연주 순서와 연주 방법을 알고 감상해 보자.



▶ 연주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 하현도드리는 ‘현악 영산회상’에만 나온다.

**활동 2** 영산회상을 알아보고 빈칸을 적어 보자.

구분	현악 영산회상	관악 영산회상	평조회상
연주 형태	중류류	관악 영산회상	평조회상
곡의 분위기	조용하고 명중하다	장엄하고 씩씩하다	화려하고 장대하다
음악의 쓰임	선비나 지식인의 풍류 음악		

**활동 3** 그림을 보고 ‘삼현육각’에 쓰인 악기를 찾아보자.

**삼현육각** 피리2, 대금, 해금, 장구, 북이 각각 하나의 편성되는 풍류로, 무용에 반주로 쓰일 때는 ‘삼현육각’, 감상용으로 연주되면 ‘대중류’라 한다.



김홍도의 ‘무동’

**활동 4** ‘영산회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보자.

62

**교수 · 학습 계획**

단계	교수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 자료 · 유의점
도입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류류’ 연주 동영상과 보고, 알고 있는 국악기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li> <li>• 학습 목표를 제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li> <li>• 영산회상</li> </ul>
전개	악곡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산회상’의 연주 순서와 연주 방법을 알아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산회상’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본다.</li> <li>• 그림 속에 나타난 ‘삼현육각’에 쓰인 악기를 찾아본다.</li> <li>• ‘영산회상’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어 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산회상’을 김홍도의 ‘무동’과 연계하여 이해하도록 한다.</li> <li>• ‘하현도드리’는 현악 영산회상에서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li> </ul>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배에 따른 형식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상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배에 따른 형식을 생각하며, 감상하도록 한다.</li> </ul>
정리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산회상의 종류와 한배에 따른 형식에 대해 정리해 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산회상의 종류와 형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한다.</li> </ul>

## 교과서 활동 해설

### 1. 한배에 따른 형식

영산회상은 한배에 따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느린 곡으로 시작하여 점점 빠른 곡으로 이어가는 형식을 말하며, '한배'란 빠르기를 뜻하며, 이러한 형식의 악곡은 '가곡', '영산회상', '산조' 등이 있다.

### 2. '영산회상'의 종류

구분	현악 영산회상	관악 영산회상	평조회상
다른 이름	중광지곡	표정만방지곡	유초신지곡
연주 형태	출풍류 거문고, 가야금, 세피리, 대금, 해금, 양금, 단소, 장구	대풍류 피리2, 대금, 해금, 좌고, 장구 (삼현 육각 편성)	관현악 향피리, 대금, 해금, 소금, 거문고, 가야금, 아쟁, 장구, 좌고 등
곡의 분위기	조용하고 평온하다.	씩씩하고 활기차다.	화려했고 장대하다.
음악의 쓰임	선비나 지식인의 풍류 음악	무용 반주 (‘군악’ 제외)	춘앵전의 반주 음악, ‘상영산’은 피리·대금 독주곡
특징	거문고 중심의 풍류 음악	-	저음역이기 때문에 하현도드리 생략

### 3. 그림 속 반주에 쓰인 악기

	작품명	김홍도의 '무동'
	연주 형태	삼현육각 반주
	악기 편성	북, 장구, 피리2, 대금, 해금

## 참고 자료

### 1. 현악 영산회상

'거문고 선율을 중심으로 연주한다.' 하여 '거문고 회상'이라 하고, '중광지곡'이라 불리며 현악기라는 말을 빼고 '영산회상'이라 부르기도 한다. 악곡의 구성은 '상영산·중영산·세영산·가락덜이·삼현 도드리·하현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의 9곡으로 되어 있다. 악기 구성은 세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장구이며 근래에는 단소와 양금이 추가 되어 연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소규모의 악기 편성을 세악 편성이라고 한다. 세악 편성의 특징은 첫째, 소리가 작은 세피리를 사용한다. 둘째, 대금은 소리가 작은 저취나 평취로 연주한다. 셋째, 장구 역시 소리가 작은 변죽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 2. 관악 영산회상

현악 영산회상에서 변주된 곡으로 관악기가 중심이 되며 삼현육각 편성에 의한 '영산회상'이라는 뜻으로 '삼현 영산회상'이라고도 한다. '바른 정치가 만방에 퍼진다'는 뜻의 '표정만방지곡'이라고도 하는 '대풍류' 음악으로 상영산·중영산·세영산·가락덜이·삼현 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의 8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곡인 '군악'을 제외하고는 주로 무용 반주 음악으로 사용된다. 악기 구성은 향피리(2), 대금(1), 해금(1), 북(1), 장구(1)로 삼현육각 편성이다. 때에 따라 아쟁, 당적(소금) 등이 추가 되기도 한다.

### 3. 평조회상

현악 영산회상을 4도 아래로 조옮김한 것으로 평조의 영산회상이라는 뜻이며, 이른 봄에 새로 돌아난 벼들이라는 뜻의 '유초신지곡'이라고도 한다. 관악 영산회상처럼 하현도드리가 없이 상영산·중영산·세영산·가락덜이·삼현 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의 8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기 구성은 향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장구, 아쟁, 좌고이다.

### 4. 삼현육각

'삼현육각'(三絃六角)은 '대풍류' 편성과 동일하지만 주로 무용 반주 음악의 악기 편성을 지칭한다. '대풍류'가 감상용 음악이라면, 삼현육각은 무용 반주용 음악이다. 비슷한 악기 편성의 음악인 '대풍류'와 '삼현육각'의 음악들이 그 편성이나 용도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또한 무용 반주와 감상의 영역을 서로 넘나들면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무용 반주음악으로 쓰이며, '삼현육각'의 현재 편성에는 피리(2), 대금(1), 해금(1), 장구(1), 북(1)과 같이 관악기와 타악기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 더 알아보기

### • 춘앵전

'춘앵전'은 봄날 지저귀는 피꼬리를 형용하여 추는 춤으로 1828년(순조 28년)에 만들어졌다. '춘앵전'은 궁중 음악으로 피꼬리의 색상인 노란색 의상을 입고, 붉은 띠를 허리에 두른 무용수가 꽃무늬가 수놓아진 화문석 위에서 혼자 추는 춤이다.

## 학습 목표

- 종묘 제례악의 구성을 알고 감상한다.

## 악곡 해설

‘종묘 제례악’은 조선 역대 군왕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와 영녕전의 제향에 쓰이는 음악으로 국가 무형 문화재 제1호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다. 1435년(세종 17년)에 우리의 향악인 보태평 11곡과 정대업 15곡을 만들어 회례악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세조 때에 ‘종묘 제례악’으로 사용하였다. ‘종묘 제례악’은 종묘의 정전 앞 대청위(상월대)에서 연주하는 등가와 대청 아래 뜰(하월대)에서 연주하는 헌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등가와 헌가에서 정대업 11곡과 보태평 11곡을 교대로 연주한다. 정대업은 조선시대 역대 왕의 무공을 노래한 것이며, 보태평은 조선시대 역대 왕의 문덕을 노래한 것이다. 종묘 제례 때 보태평과 정대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는 ‘악장’이라 한다. 그리고 제향에서 절차에 따라 추는 춤을 ‘일무’라고 한다. 보태평을 연주할 때 추는 ‘문무’와 정대업을 연주할 때 추는 ‘무무’가 있으며 8명씩 8줄로 서서 64명이 8일무를 춘다.

## 교수 · 학습 계획

단계	교수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지도 자료 · 유의점
도입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의 전경과 종묘 제례의 의식 사진을 제시하고, 무엇을 하는 모습인지 의견을 나눈다.</li> <li>•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li> <li>• 종묘 제례악</li> </ul>
전개	악곡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에 대해 알고, 종묘 제례악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본다.</li> <li>• 종묘 제례악의 악기 구성에 따른 배치를 알아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 제례악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아본다.</li> <li>• 종묘의 현장 체험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하고, 발표한다.</li> <li>• 종묘 제례악의 특징과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의 지도를 보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찾아가갈 수 있는지 지도를 보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li> <li>• 종묘 제례악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 제례악의 쓰임과 구성을 알고 감상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 제례악의 쓰임과 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정리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 제례악의 계승·발전 방안을 탐구하고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 제례악의 계승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li> </ul>

## 종묘 제례악

▶ 학습 목표 | 종묘 제례악의 구성을 알고 감상한다.

‘종묘 제례악’은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종묘에서 제례를 드릴 때 연주하는 음악으로, 악기 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춤으로 표현하는 악(樂, 기악), 가(歌, 노래), 무(舞, 춤)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다.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보태평 11곡과 무덕을 칭송하는 정대업 11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묘 제례악’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종묘 제례가 행해진다.

▶ **활동 1** | ‘종묘 제례악’의 배치와 구성을 알고 감상해 보자.

악  
(樂)

가  
(歌)

무  
(舞)

종묘의 셋을 위에 편성되는 등가와 셋들 아래에 편성되는 헌가에서 번갈아 연주하는 음악으로, 보태평과 정대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등가에서의 연주는 하늘을 의미하고, 헌가에서의 연주는 땅을 의미하며, 일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종묘 제례악’의 악장은 문덕을 노래하는 보태평과 무공을 노래하는 정대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악장 중의 제전이나 연례 때 악기 연주가 맞추어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종묘에서 제례를 지낼 때 추는 춤인 일무를 말하는 것으로, 문덕을 노래한 보태평에서는 문무를 추고, 무공을 노래한 정대업에서는 무무를 춘다. 문무 원순예 악, 오른손예 척을 들고 정적이면서 무무 원순예 척을 들고 춤을 춘다. 무무 원순예 척은 목걸, 뒤에 4층은 목침을 든 채 강하고 힘차게 추는 춤이다.

▶ **활동 2** | ‘종묘 제례악’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아보고, 계승·발전 방안을 토의해 보자.

구분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계승·발전 방안
종묘 제례악			

▶ **활동 3** | 종묘로 현장 체험을 떠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고 발표해 보자.

구분	소개	위치	관람 시간	관람 요금	관람 규칙	기타
종묘						

## 교과서 활동 해설

### 1. '종묘 제례악'의 배치와 구성 알아보기

정읍사	내용
악 (樂, 기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가: 종묘의 댛돌 위(상월대)의 연주단을 말하며, 현악기 위주로 구성한다.</li> <li>• 헌가: 종묘의 댛돌 아래(하월대)의 연주단을 말하며, 관악기와 타악기 위주로 구성한다.</li> </ul>
가 (歌,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 제례악에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며, 선왕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태평: 선왕의 문덕을 기린 악곡</li> <li>- 정대업: 선왕의 무공을 기린 악곡</li> </ul> </li> </ul>
무 (舞, 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 제례에서 추는 춤을 말하며 8줄 8열씩 늘어서 있기 때문에 '팔일무'라 부르며, 문무와 무무로 나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무: 보태평 가락에 맞춰 왼손에 악, 오른손에 적을 들고 정적이면서도 부드럽게 추는 문인 취향의 춤</li> <li>- 무무: 정대업 가락에 맞춰 앞에 4줄은 목검, 뒤 4줄은 목창을 든 채 강하고 힘차게 추는 무인 성격을 지닌 춤</li> </ul> </li> </ul>

### 2. '종묘 제례악'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알아보기

- '종묘 제례악'은 궁중의 제례악으로 1964년 우리나라 국가 무형 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 세계 유네스코 위원회에서는 '종묘 제례악'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여 2001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였다.
- '종묘 제례악'은 유교적 제례의 특징인 가·무·악이 제례 의식과 제례 공간까지 완벽하게 갖추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현재까지 거행되어 오는 세계 유일한 사례이다.

### 3. '종묘 제례악'의 음악적 가치 알아보기

기악과 노래, 무용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 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선조들의 문화적 자긍심이 배어 있는 500년 넘게 전해져 오는 역사적인 음악이다. 또한, 종묘제례악은 중국 음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한 향악곡으로 만든 것이라 창의력과 독창성도 높이 평가된다.



#### 더 알아보기

- 헌가: 댛돌 아래에 배치되어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
- 등가: 댛돌 위에 배치되어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
- 일무: 제례에서 추는 춤으로 문덕을 찬양하는 문무와 무관을 찬양하는 무무로 구성

### 4. 종묘 현장 체험 사전 조사하기 (예시)

구분	종묘
소개	조선 왕조의 역대 국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봉행하는 유교 사당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관람 요금	내국인(만 25세-64세 이하) 1,000원 외국인(만 19세 이상-64세 이하) 1,000원 외국인(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500원
관람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 및 인화성 물질 소지 시 관람 불가.</li> <li>- 종묘 내 잔디밭, 산지, 건물 내부 등은 출입 제한.</li> <li>-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하여 음료수 및 음식물의 반입은 제한.</li> <li>- 반려 동물과 함께 입장 불가.</li> <li>- 문화재 해설사의 인솔에 따라 관람하실 수 있으며, 관람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시에는 관람이 제한될 수 있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화요일 휴관</li> <li>- 단체 할인 없음</li> </ul>

### 5. 종묘 제례악의 악사 복장 알아보기



▲ 정대업 일무악공

▲ 등가·헌가악공

▲ 악사(집박)

▲ 보태평 일무악공

## 참고 자료

### • 보태평과 정대업

'종묘 제례악'에 사용되는 보태평과 정대업은 세종 때 보태평 11곡, 정대업 15곡으로 창제되었으나, 세조 때에 이르러 각각 11곡으로 축소하여 제정되었다. 보태평은 선왕들의 문덕(文德)을 칭송한 내용으로 희문·기명·귀인·형가·집녕·융화·현미·용광정명·중광·대유·역성의 11곡으로 이루어지며, 보태평 11곡을 모두 연주하는 경우는 초헌례가 진행될 때뿐이며, 영신과 전폐에서 연주하는 보태평은 '희문' 한 곡만을 가리킨다. 정대업은 선왕들의 무공(武功)을 기린 내용으로 소무·독경·탁정·선위·신정·분웅·순웅·충유·정세·혁정·영관의 11곡으로 이루어진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종묘 제례악'의 보태평과 정대업은 원래 세종 때 고취악과 향악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뒤 회례연악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 민요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구분		내용
향토 민요	노동요	거문도 뱃노래(전라도), 옹헤야(경상도), 방죽맥이(인천), 멀치 후리는 소리(제주도), 여주 논매는 소리(경기도), 벼바심 소리(충청도), 훨훨이(경기도), 강릉 모심는 소리(강원도), 논 꾸미는 소리(전북)
	의식요	지신밟기 소리(충청도), 상여소리(경상도), 성주풀이 소리(경상도), 탕건바위노래(전라도), 성주굿고사소리(충청도)
	유희요	늦다리밟기(경상도), 강강술래(전라도), 싸름(황해도), 금다래공(황해도), 자진배따라기(평안도), 개고리 개골청(전라도), 옷노래(서울),

각 지역의 아리랑을 감상하고 느낌을 비교해 보자.

구분	경기 민요	동부 민요	남도 민요	서도 민요
제목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해주 아리랑
토리	경토리	메나리토리	육자배기토리	수심가토리
장단	세마치장단	세마치장단	세마치장단	세마치장단
특징 및 느낌	가락이 급격하지 않고, 부드럽고 서정적이다.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억양이 강하다.	꺾는 음, 떠는 음, 평으로 내는 음을 사용하여 가락이 구성지다.	애수적이고 감상적이며, 콧소리를 섞어서 부르는 노래가 많다.

### 종묘 제례악의 악기 편성

종묘 제례악의 악기 편성은 아악기로만 연주하는 문묘 제례악과 다르게 아악기·당악기·향악기를 혼합 편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악기로는 편종, 편경, 축, 어, 박이 사용되며 당악기로는 당피리, 방향을 사용하고, 향악기로는 젓대, 새납(태평소), 아쟁, 해금 등을 사용한다. 등가와 헌가에 모두 노래가 있는 것도 문묘악과 다르며, 헌가에서 연주하는 정대업의 소무, 분용, 영관의 새납 연주는 더욱 다양하다.

#### • 등가와 헌가 편성 악기

등가의 악기 편성	헌가의 악기 편성
편종, 편경, 축, 절고, 박, 당피리(3), 방향, 젓대(2), 아쟁, 장고, 어	편종, 편경, 축, 진고, 박, 당피리(3), 방향, 새납, 대금, 젓대(2), 해금, 장고, 어

■ 종묘 제례악의 역사적 배경과 음악의 기능을 모듬별로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구분	내용			
제사문화 (절차와 순서)	절차	의식 절차의 내용	악곡	주악위치
	영신례	신을 불러 들이는 것	희문9성	헌가
	전폐례	폐백을 드리는 것	전폐희문	등가
	진찬례	찬을 올리는 것	풍안지악	헌가
	초헌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	보태평 전곡	등가
	아헌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	정대업 전곡	헌가
	종헌례	마지막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	정대업 전곡	헌가
	철번두	제사 지낸 그릇들을 덮는 것	옹안지악	등가
	송신례	신을 보내는 것	흥안지악	헌가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종묘 제례악도 기악, 노래, 춤과 함께 행해진다.			
종묘 (위치, 역사,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li> <li>• 역사: 태조 3년(1394)에 착공하여 정전을 짓고 세종 3년(1421)에 영녕전을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타 버리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 다시 세운 것이 지금 종로 3가에 남아 있다.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사적 제125호.</li> <li>• 용도: 조선 왕조의 역대 국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봉행하는 유교 사당</li> </ul>			
종묘 제례악의 역사 (세종·세조 시대의 구별)	<p>종묘 제례악은 종묘와 영녕전의 제사에 사용되는 기악과 노래와 무용을 말한다.</p> <p>종묘 제례악에 사용되는 음악인 정대업과 보태평은 세종 때 만들어 졌으나, 그 당시에는 회례악으로 사용되었고, 세조 때 이르러서 종묘 제례악으로 사용되었다. 세종 때의 정대업은 15곡, 보태평은 11곡이었는데, 세조 때에 이르러 정대업 11곡, 보태평 11곡으로 고정되었으며 세종실록 악보, 세조실록 악보, 대악후보, 속악원보 등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p>			
종묘 제례악의 기능	<p>종묘에 봉안된 조선시대 역대 임금의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음악·노래·춤 일체를 가르키는 말로 종묘의 제례악은 선왕이 이룩한 업적을 찬미하며, 후손들의 창성과 복록을 구하기 위한 의식 음악의 기능을 하고 있다.</p>			
종묘 제례악의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 제례악의 악(樂:음악 - 악기 연주) 종묘 제례악에 연주되는 음악은 선왕의 문덕을 기린 보태평 11곡과 무공을 기린 정대업 11곡으로 구성되며, 등가와 헌가로 나누어 연주한다.</li> <li>• 종묘 제례악의 가(歌:노래 - 악장) 종묘 제례악에서 부르는 노래를 악장이라고하며 조선 시대 역대 왕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가사로 되어 있다.</li> <li>• 종묘 제례악의 무(일무(佾舞) - 춤) 종묘 제례악의 제사 때 추는 춤을 통틀어 일무라고 하며, 학문의 덕을 찬양하는 문무(文舞)와 무곡을 찬양하는 무무(武舞)로 구성되며 8줄 8열씩 64명이 8일무를 춘다.</li> <li>• 문무는 문덕을 기리기 위해 보태평 가락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보태평지무'라고도 하며, 오른손에 '적', 왼손에 '악'을 들고 춤을 춘다.</li> <li>• 무무는 무공을 찬미하기 위해 정대업 가락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정대업지무'라고도 하며 앞의 네 줄은 나무칼과 뒤의 네 줄은 창을 들고 춤을 춘다.</li> </ul>			